▶▶ 매일 INDEX

4면
'2021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전주서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1년 10월 1일 금요일 (음 8월 25일) 제2871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시대적 사명"

민주 균형발전특위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간담회

송 지사, 지역 주력산업 연계 정부 주도 등 제언

지난달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간담회에 윤호중 원내대표, 송재호 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상임고문과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비롯한 시도지사들이 균형발전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도권에 편중된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은 국가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이뤄야할 시대적 사명입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송재호 위원장; 이하 균형특위)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간담회에서 이같이 역설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 지사는 이날,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정책적 구호가 아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시.도별 의견을 수렴해 공동건의문을 작성하는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균형특위' 제2기 출범식과 함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간담회를 개최, 향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출범식에는 윤호중 원내대표(경기 구리시), 우원식 상임고문(서울 노원구을), 간사인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과 균형발전특위 위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지사를 비롯해 김영록 전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당시 원내대표인 우원식 의원을 중심으로 출범한 제1기 균형특위에 이어, 올해 7월,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총 56명의 2기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회 목표와 방향, 향후 운영 계획 등을 발표했다.

2기 위원중에 전북은 ▲(전북본부) 김성주 의원(본부장), 송지용 도의장, 한완수 도의원, 이정자 시의원, 서난이 시의원 ▲(균형발전입법추진단장) 이원택 의원 ▲(민간자문위원) 소준노 교수, 서정인 교수, 최광수 교수등 9명이다.

이날 송재호 위원장은 "1기 균형특위 논의 과제 및 권역별 순회간담회의 도출 결과를 기반으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차기 정부에 균형성장을 위한 10대 의제를 제안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제2기 출범식에 이어, 송재호 위원장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간담회가 개최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선 제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와 추가 이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방안들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송하진 지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같은 과감한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소외지역에 대한 우선 배려, 자치단체간 소모적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정부 주도 방식 고려,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함께 참석한 전남지사, 충북지사, 세종시장도 한목소리로 지방의 낙후지역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제2차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균형특위는 "코로나19 방역과 거리두기 방침에 맞춘 권역별 순회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전북과 같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희망하는 지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을 만나 균형발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유호상 기자

구제역·AI 대응 도, 특별방역 개시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24시간 비상 상황유지 등

전북도가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도와 시·군, 방역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 24개소에 방역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비상 상황유지 및 신고체계 확립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우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7개소(금강, 만경강, 동진강, 동림저수지, 부안 조류지, 전주천, 원평천)에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소독차량을 총 동원해 매일 소독을 실시, 철새로부터 가금농가로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철새도래지 인근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농가를 선별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사육제한(오리 약 60만수)을 실시한다.

아울러, 축산차량의 경우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 출입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을 의무화하고, 닭과 오리 정밀검사를 월 1회로 강화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차단방역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제역 예방을 위해 이달 중 소와 염소에 일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접종 확인을 위해 1개월 후인 11월부터 백신 항체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는 과태료(1차위반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천만원 이하)가 부과되며, 추가 접종 및 재검사가 이뤄지게 된다.

박태욱 도 동물방역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서도 농장 안팎에 대한 기본적인 차단방역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축산농가는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육 가축을 면밀히 관찰해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그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씨앗, 미래의 희망'

2021 국제종자박람회, 6일부터 온라인 개최

전북도가 '2021년 국제종자박람회'를 오는 6일부터 11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종자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북도, 김제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주관하는 종자산업 분야 국내 유일의 박람회이다. 국내 육성 우수 품종의 수출 및 국내 보급 확대를 통해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육종연구단지'가 위치한 김제시 백구면 일원에서 지난 2017년부터 개최해온 '국제종자박람회'는 국내 육성 우수 품종의 수출 및 국내 보급 확대를 통해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국제종자박람회 주제는 '씨앗, 미래의 희망'으로 온라인 박람회장을(www.koreaseedexpo.com) 통해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이번 온라인 박람회장은 ▲종자산업에 대한 지식, 정보 등을 제공하는 '스토리타운', ▲참가기업소개 및 비즈니스를 위한 전용공간인 '참가기업타운',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등 종자 연관 기관 등을 설명하는 '유관기관타운', ▲VR 가상공간, 현장스케치 동영상을 통한 전시작물을 소개하는 '파노라마전시포', ▲종자산업 학술 행사 등을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미디어타운' 등 5개 공간으로 구성됐다.

다만, 파노라마전시포는 기업 관계자 및 관람객들의 직접 참여를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사전 전화 예약·접수를 통해 일부 개방 운영한다.

개방 운영기간은 14일부터 16일까지이며, 이 기간동안 오전·오후 각 1회에 50명씩 관람이 허용된다.

전시포에는 종자기업 32개사가 참가해 30작물 454품종이 재배되고 있으며, 품종정보는 '온라인 박람회장의 VR 전시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외 바이어들의 참여를 위해 KOTRA와 협력해 화상 시스템을 활용한 B2B 수출상담회를 진행하며, 해외로 종자샘플 발송시 물류비 일부와 사후관리 등도 지원한다.

신원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열리는 2021년 국제종자박람회가 국내 종자산업의 인지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국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4일 대체공휴일 관계로
신문은 5일 발행합니다